



농산물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4. 2. 13.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8호
----------	------

제출연월일 : 2024. 2.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제안이유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3차 권고안(2021.11.22.)」에
따른 조례 제명, 본문 내용의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촬영”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고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29(2024.01.04.)호]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정책과-571(2024.01.05.)호]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15351(2023.12.29.)호]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2. 29. ~ 2024. 01. 18.(20일)

나)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
례”를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안심지역 선
정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지 제3호에 의한”을 “및 제3호
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몰카안심지역 선정 등)”을 “(불법촬영안심지역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몰카안심지역”을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환 경 과 장	홍 성 문
	수 질 관 리 팀 장	손 현 주
	담 당 자	김 현 아 (746-555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u></p> <p>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u>내지 제3호에</u> <u>의한</u>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 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한다.</p> <p>1. ~ 3. (생 략) ②·③ (생 략)</p> <p>제13조(<u>몰카안심지역 선정 등</u>) 시 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 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u>몰카안심지역</u>으로 지정 후 인증 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p>	<p><u>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안심지역 선정 조례</u></p> <p>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 ----- ----- ----- ---. ----- <u>및 제3호에 따</u> <u>른</u> ----- ----- ----- -----.</p> <p>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u>불법촬영안심지역 선정 등</u>) ----- ----- <u>불법촬영안심지역</u>----- ----- ---.</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환경과장 홍 성 문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3차 권고안(20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

1. 권고 배경

- 뉴스 등 미디어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를 희화화 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옴

2. 성범죄 보도 현황 및 사례

가. (생 략)

나. 사례

- ①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희화화하고, 피해자를 주목시키는 기사

-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유희적 의미를 내포한 ‘몰카’로 약칭하거나, 성범죄나 가해자를 ‘몹쓸 짓’, ‘늑대’, ‘짐승’으로 표현하는 등 범죄의 위법성을 희석하거나 범죄 의식을 약화시키는 용어 사용

※ 2018~2021 몰카 등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언론 기사 통계(건수)(출처 S2W)

연도별 \ 용어	몰카	몹쓸 짓	리벤지포르노
2018	682	14	31
2019	4,857	47	45
2020	1,886	57	20
2021	1,177	70	18
Total	8,602	188	114

3. (생 략)

4. 권고 사항

가. 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 공공 분야 간행물 등에 사용된 표현은 언론을 비롯한 각계 분야에서 그대로 인용되거나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 관련 내용의 문구나 표현에 있어 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올바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붙임 1】 「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

붙임 1

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

잘못된 표현 및 사용례	
몰카, 몰래카메라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내포하여 범죄의식 약화 초래
음란물	범죄 피해영상물을 ‘음란물’로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됨
리벤지포르노	‘리벤지’는 복수, 보복이라는 뜻으로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하나, 허위영상물 제작·유통 등 범행을 통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됨
야동	성인물 또는 음란물을 뜻하는 은어 또는 비속어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
불법촬영
★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
불법촬영물(촬영부동의 영상인 경우) 불법유통물(유통부동의 영상인 경우)
불법합성물
성인물 또는 음란물 ★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